

One pick

업 앤 다운



최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방문한 그룹 S.E.S 출신 슈. 사진출처 | 슈 인스타그램 캡처

‘상습 도박’ 물의 슈, 활동 재개 “응원해” “복귀 이르다” 팽팽

“도박이라는 꼬리표, 숨기지 않겠습니다.”  
해의 상습 도박 혐의로 물의를 빚은 걸그룹 S.E.S 출신 슈가 활동을 재개했다. 최근 교양프로그램 ‘스타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한 데 이어 SNS를 다시 열고 대중과 소통에 나섰다. 그는 남편 임효성과의 불화설 등 각종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불태우고 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억 원대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2019년 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또 도박으로 발생한 대여금 반환 소송 등 각종 송사에 휘말리며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10일 ‘마이웨이’로 4년 만에 방송가에 얼굴을 내민 슈는 19일 SNS를 통해 또 다른 근황을 알렸다. 그는 “한국 코치협회에 초급 코치 자격을 받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며 “도박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S.E.S의 멤버였던 가수 바다, 배우 유진은 슈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최근 방송에도 함께 출연한 이들은 슈의 SNS 게시물에 “응원하며 기다릴게”라는 댓글을 달며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냈다.

슈의 복귀 시도에 대중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다. 일부 팬들은 “세 아이의 엄마로서 새 삶을 살길 바란다”고 응원했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복귀하기 이르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9@donga.com

‘보릿고개’ 극장가...유지태·소지섭의 소신있는 행보

‘설 곳 잃은 영화’ 향한 톱스타의 특별한 사랑

유지태 10년째 독립영화 함께 보기 티켓 100장 사서 관객들에 나눠줘 서울아트시네마 객석 의자 후원도

소지섭은 다양성 영화 수입에 투자 “작품성 훌륭, 함께 보고싶어 시작”

배우들이 저예산 독립·다양성영화를 위한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유지태와 소지섭이다. 두 사람이 감염병 확산 여파로 유례없는 ‘보릿고개’를 맞은 극장가에서 설 곳을 잃어버린 저예산 독립·다양성영화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유지태...관객과 함께 독립영화에 힘

의미 있는 독립영화를 선정해 사비로 독립영화 전용 극장 티켓 100장을 구매해 관객과 함께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유지태와 함께 독립영화 보기’ 행사를 2012년부터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예수보다 낫선’, ‘언더독’, ‘수성못’, ‘초행’, ‘만신’ 등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까지 다양한 장르의 독립영화를 소개해 왔다.

올해에도 25일 서울 마포 인디스페이스에서 16번째 상영회를 연다. 연송하 감독의 ‘역할들’을 소개한다. 연 감독, 주연 배우들과 함께 관객과의 대화(GV)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배우 유지태와 소지섭(왼쪽부터)이 독립영화와 다양성영화를 대중에게 소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스포츠동아 DB·사진제공 | 51K

독립영화 전용 극장인 서울 종로 서울아트시네마 재개관에도 힘을 보탤다. 개그맨 김준호 등 친구들과 함께 200여 객석의 의자 교체를 후원했다. 소속사 BH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극장 리모델링이 시급하다는 소식을 들은 뒤 기꺼이 팔을 걷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019년에는 다큐멘터리영화

‘이타미 준의 바다’ 내레이터로 참여, 출연료를 독립영화상인 들꽃영화상에 기부하기도 했다.

●소지섭...외국 다양성 영화 수입

소속사 51K를 통해 다양성영화 수입·배급사 차란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두 개의 사랑’, ‘필로미나의 기적’, ‘그녀, 잉그리드 버그만’, ‘5일의 마중’, ‘프란츠’ 등 수입 크레디트에 공동제공으로 이름을 올린 영화만 벌써 수십 편이다. 극장 관객이 크게 줄어든 감염병 확산 사태 속에서도 ‘그린 나이트’, ‘여름날 우리’, ‘휴먼 보이스’, ‘썸머 85’ 등 ‘웰메이드’라는 호평을 받은 영화를 관객에게 선보여 왔다.

2018년 각종 인터뷰에서 “작품성과 개성이 뛰어나지만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 극장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영화를 관객과 함께 보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라고 밝혔다. “혹자는 ‘취미로 하는 일’, 혹은 ‘돈 많으니까 하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상처가 될 말이다. 취미가 아니라 좋아서 하는 일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1일 독립영화 한 배급 관계자는 “감염병 사태로 가뜰이나 상황이 어려운 저예산 독립·다양성영화가 더욱 설 곳을 잃고 있다”면서 “스타급 배우들의 관심은 관객의 시선을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K 장르물의 힘 보여주마”...티빙 ‘괴이’ 해외 정조준

칸 시리즈 비경쟁부문에 이미 초청 ‘지옥’ 연상호 감독 대본 써 더 화제 29일 개봉 앞두고 해외매체들 주목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괴이’가 케이(K) 장르물의 세계적 인기를 등에 업고 해외무대를 정조준한다. 앞서 프랑스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칸 시리즈) 비경쟁부문에 초청되는 등 일찌감치 해외의 관심을 받고 있다.

29일 공개하는 ‘괴이’는 한 시골 마을에 저주 받은 불상이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

야기를 담는다. 마을 사람들이 좀비처럼 변해가는 현상을 파헤치는 고고학자 구교환과 아내 신현빈, 파출소장 김지영, 마을 주민 광동연 등이 주연한다.

해외에서는 “한국형 장르물”의 신작이라는 점에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지옥’을 비롯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 ‘지금 우리 학교는’ 등 좀비와 오컬트 요소를 앞세운 한국 작품이 잇달아 세계적 흥행을 거둔 덕분이다.

특히 영화 ‘부산행’,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 등을 성공시키며 혼란과 재난상황을 통해 다양한 인간의 이야기를 그

려운 연상호 감독이 대본을 썼다는 점도 힘을 더한다.

이달 6일 칸 시리즈의 코리아 포커스 부문에서 선보이면서 해외의 관심도 엿보게 했다. 티빙에 따르면 와이어드닷컴, 케이소 사이어티 등 현지 매체들은 연출자 장건재 감독과 광동연에게 “한국형 공포물”과 “케이 드라마의 미장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며 ‘괴이’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냈다.

구교환과 광동연 등 주연들도 화제몰이의 원동력으로 꼽힌다. 두 사람은 지난해 각각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D.P.’와 t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괴이’

vN ‘빈센조’에 출연하며 해외 인기를 얻었다. 티빙은 이들을 내세운 각종 프로모션 영상을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공개하며 국내외에 드라마를 알린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암 보험, 걱정없이 산다**

수술한 적 있는 나도 **칠순**이 넘은 나도 (40~75세 가입가능)

당뇨를 달고 사는 나도 **암** 걸린 적 있는 나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생명보험 협회 심의필 제 2020-02556호 (2020.09.01) (COM-2020-08-32243)

**무배당 꼭 필요한 암보험** (갱신형)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가능

나이가 많아도 (40~75세)	지병이 있어도	수술 병력이 있어도	앞에 걸린 적이 있어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	---------	------------	----------------------------

보험금도 든든하게 **일시금 정액지급**

암보험 가입 힘드셨던 분들, 지금 전화주세요  
**080-608-1010**

스텝가마솥 1개 상담완료 시 **무료증정!**

- 접수 후 7일 이내, 최소 5분 이상 상담 시 (개인정보 제공)
- 배움은 상담완료 후 약 5주 소요 (연 1회 한함)
- 당사 제품(가마솥)은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 본 상품은 소비자 기증 권위를 초과하지 않음
- 조기 풀릴 시 다른 경로로 대해 발송됨

• 가입 후 1일부터 보장된다. 소액암은 가입 첫날부터 보장(최초 1회 보장) 가입 2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 •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 까지 보장(갱신 시 보험료 인상될 수 있음)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통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력자 및 고연령자 대상 상품입니다. 의사의 건강진단이나 일반계약 심사를 받은 경우 더 저렴한 일반보험가입 가능함  
• 당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전문 상담원에게 문의하십시오  
•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AA생명보험 주식회사